上宰相書
상제상서
Letter to the Chancellor

丁夏祥
정하상
Jung Hasang
丁保祿
정바오로
Jung Paul

伏以孟氏之廓闢, 楊墨者, 恐其肆害, 於儒門也. 韓愈之攻, 斥佛老者, 恐其惑亂於黔首也.
엎드려 아뢰옵건데, 맹자가 양주와 묵적을 크게 배척하였던 것은 그 사상이 유교를 함부로 해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며, 한유가 불교와 도교를 공격하여 배척한 것은, 그 사상이 일반 백성을 미혹하여 어지럽힐까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Forwarding with great humility, the reason why Mencius greatly rejected Yangju and Mukjeok was because he was afraid that the idea would harm Confucianism, and the reason why Hanyu attacked Buddhism and Taoism and rejected it was because he was afraid that the idea would deceive and disturb the common people.

古之君子立法, 設禁必考, 基義理之如何. 爲害之如何. 然後當禁者禁之, 不當禁者不禁之.
若其果合於義理, 則雖蒭蕘之言, 聖人必取此, 不以人廢言之義也.

옛날의 군자가 법률을 제정하여 금지하는 조항을 둘 때에는 반드시 그 의리가 어떠한지 또 그 해로움이 어떠한지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라야 마땅히 금할 것은 금하였으며, 마땅히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금하지 아니아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과연 의리에 합당한 것이라면 비록 나무꾼의 말이라도 성인은 반드시 취하였으니, 이것은 사람을 보고 그말을 버리지 아니한 의리입니다.

When a gentleman in the past made a law and made a provision to prohibit it, he always looked at what the righteousness was and how harmfulness it was. After doing so, he did forbid what should be forbidden, and he did not forbid what he should not be forbidden. If the words were indeed worthy of the righteousness, even if it was a word of a woodcutter, the saint must have taken it, so this is the righteousness of not abandoning the words due to one’s character.

若國之禁天主聖教者, 其意何居, 初不問義理之如何, 以至冤極, 痛之說歸之邪道,
置之大辟之律, 辛酉前 後, 人命大損, 而無一人查考其源流.

나라에서 천주성교 를 금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옵니까? 먼저 의리가 어떠한지를 묻지도 아니하고, 지극히 원통한 말로써 사도(邪道)로 몰아 대벽률로 처치하여, 신유년을 전후하여 인명을 크게 손상시키면서도, 그 교리의 연원과 유전에 대하여 조사하고 살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What is the intention behind banning Catholicism in the country? First of all, one did not ask how righteousness is (behind Catholicism), and (but) with extremely grievant words, condemning with harsh law by accusing of falling into personal way (being misguided or heresy) and although great damage has been made to human life around year of ShinYu (around 1801), no one investigated and examined the origin and heritage of the doctrine.

噫, 爲學者, 將爲儒門之害歟. 將爲黔首之亂歟. 是道也, 自天子達于庶人, 日用常行之道, 則不可謂, 爲害 爲亂也.

오호라! 이 도리를 배우는 자가 장차 유교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까? 또는 장차 백성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도리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쓰고 언제나 행하여야 할 도리인 것이니, 해가 된다거나 어지럽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Oh! Does learning this way (Catholicism) mean that it will harm Confucianism in the future? Or does it mean it will disturb the common people in the future? This way is a principle that must be used and followed every day, from the son of the heaven (Emperor) to the ministers. It cannot be said to cause harm or disorder.

玆敢畧言, 其道理之不非. 夫天地之上, 自有主宰, 厥有三證焉. 一曰萬物, 二曰良知, 三曰聖經.

이제 감히 이 도리가 그릇되지 아니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천지의 위에 주재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것은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이요, 둘째는 양지요, 셋째는 성경입니다.

Here, I dare to briefly speak, as the principle is undeniable. Above heaven and earth, there is a ruler. There are three proofs of this. The first is “all things” (the myriad creatures), the second is innate knowledge (the good conscience), and the third is the holy scriptures.

何謂萬物, 請以房屋喩之彼房屋也. 有柱石有樑椽有門戶有墻壁, 間架不失尺寸, 方圓各有制度. 若曰, 柱石樑椽門戶墻壁, 渾然相合, 兀然自立, 必曰, 狂人之言也.

만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집과 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건물에는 기둥과 주춧돌이 있고, 대들보와 서까래가 있으며, 문과 창이 있고, 담과 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한 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으며, 모나고 둥근 것이 각각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둥과 주춧돌과 대들보와 서까래와 문과 창과 담과 벽이 뒤섞여서 서로 합쳐져 가지고 저절로 오뚝 일어섰다고 말하면, 반드시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What is meant by “all things?” Let me illustrate it with the example of a house. That house has pillars, stones, beams, rafters, doors, walls. The framework is designed with precision, and the dimensions of each part are set according to specific proportions, both square and round. If one were to say, “The pillars, stones, beams, rafters, doors, and walls are all interwoven and stand on their own without any arrangement,” one would certainly call this the words of a madman.

夫天地大房屋也. 飛者, 走者, 動者, 植者, 奇奇妙妙之像狀, 豈有自然生成乎.
무릇 천지는 큰 건물 입니다. 나는 것, 뛰는 것, 동물, 식물과 기기묘묘한 형상들이 어찌 저절로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Heaven and Earth are like a great house. The flying, running, moving (animals), and growing beings (vegetation), with their marvelous and wondrous forms; how can it be that they naturally came into being?

若果自然則, 日月星辰, 何以不違其躔次. 春夏秋冬, 何以不違, 其代序乎.

與廢榮枯宰制者誰, 福善禍淫, 主張者誰. 上天地載無聲無臭, 擧世之人, 暗行摘塡,

歸之自然, 是何異於遺子, 不見其父, 不信其有父也哉.

만약 저절로 이루어졌다면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그 별자리의 궤적을 그르치지 아니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그 바뀌는 순서를 어기지 아니하겠습니까? 흥하고 망하며 번영하고 시드는 것을 지배하는 이가 누구이며,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주는 것을 맡으신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러러보는 하늘은 아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 니, 온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다니다가, 자연에 돌아가니, 이것이 어찌 유복 자가 그 아비를 보지 못했다 하여 그 아비 있음을 믿지 아니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If everything were truly natural (arranged, formed, and governed by itself), then how do the sun, moon, and stars not deviate from their courses? How do the seasons of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not fail to follow their proper order? Who governs the rise and fall of life, the flourishing and withering of things? Who is the master behind the rewards for good and punishments for evil? Heaven and Earth move without sound or smell, and yet all the people of the world blindly go about their lives, attributing everything to nature. Is this not like an orphan who denies believing in the existence of his father because he did not see his father?

世人見一篇奇文, 一幅名畵欽慕讚歎, 必問何人才能 斷不凡忽看過.

宇宙萬物藝藝職職林林葱葱者亦 一奇文名畵, 而自古及今寥寥沁沁獨不聞作者何哉.

世間事物俱不出於質貌作爲四字. 質者材料也. 貌 者形狀也. 作者工匠也. 爲者需用也.

近取諸身, 遠取諸物, 莫不皆然. 以若介大天地豈無作者. 此以萬物. 而知有主宰也.

세상 사람들이 한 편의 걸작이나 한 폭의 명화를 보면 흠모하고 찬탄하며 반드시 어떤 사람 의 재능으로 된 것인가를 물어보며, 결코 범상하고 소홀하게 보아 넘기지 아니합니다. 우주 의 만물이 가지각색으로 한없이 많은 것도 역시 일종의 걸작이요 명화인데 예로부터 이제까지 쓸쓸하게도, 이에 대해서만은 그 지은 자를 묻지 아니함은 무슨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질(質), 모 (貌), 작 (作), 위 (爲) 의 넉 자를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질이라는 것은 재료이고, 모라는 것은 형상이며, 작이라는 것은 만드는 이고, 위라는 것은 쓰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가까이는 자기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더라도 모두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천지에 어찌 그 지은이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만물을 통하여 주재하는 이가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When people behold a masterpiece of writing or a renowned painting, they admire it and sing its praises, inevitably asking: *"Whose talent has accomplished this?"* They never treat it as something common or pass it by without notice. These countless varied things in the whole universe too are masterpieces. And yet, with these masterpieces, it is sorrowful that no one ever questioned who the author is. All things in this world are bound by four principles: **substance (質), form (貌), maker (作), and purpose (爲).** Substance is the material. Form is the shape. The maker is the craftsman. Purpose is the use for which it is made. This order is evident whether we look closely at our own body, or more broadly at the things of the world, there is no exception. If this is so, then how could the great heavens and the vast earth be without a Maker? Thus, through all these things in the world, we can know that there is the One who rules all.

何謂良知, 若夫白晝晦暝雷電相薄, 雖孩提便知奮畏瞠目, 累足置身無知此,
可知賞罰善惡之大主宰印 在心頭矣. 閭巷間愚夫愚婦若遇蒼黃窘急之勢, 悲痛怨恨之時,
必呼天主而告之, 此其本然之心, 秉彝之性有不得掩者. 故不教而知, 不學而能.
但不知何以事之而畏之則均然. 此以良知而知有上主.

또 왜 양지를 증거로 말했을까요? 만약 백주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번개와 천둥이 치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눈을 크게 뜨고 오금을 저리며 몸둘 바를 몰라 하지요. 이로서 상벌과 선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의 마음과 머리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민간에 살고 있는 사내며 아낙들도 아주 화급하고 위급한 처지나 비통하고 억울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하늘이시여!" 하고 부르며 하소연하니, 이는 그 본래의 마음과 타고난 본성을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지요. 다만 어떻게 섬기며 두려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만은 같을 뿐입니다. 이래서 양지를 통해 천주께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What is meant by *natural conscience*? Suppose that in the brightness of day, the sky suddenly grows dark with thunder and lightning. Even a small child, though knowing nothing else, instinctively trembles in fear, opens wide his eyes, falters in his steps, and knows not where to place himself. From this we see that the imprint of the great Lord, who governs reward and punishment, good and evil, is already engraved upon the mind and heart. Likewise, even the simplest men and women in the streets, when they are overtaken by sudden peril, crushed by sorrow, or seized with grievance and injustice, will cry out instinctively: *"O Lord of Heaven!"* In this, their original heart and innate nature cannot be concealed. Thus, it is that man knows without being taught and acts without being instructed. They only lack in how to worship and fear the Lord. Therefore, through the witness of natural conscience, we know that the Most High Lord truly exists.

何謂聖經, 古之堯舜禹湯文武周孔之傳, 亦有經史而來也. 若非經史,
則誰知有堯舜禹湯文武周孔之傳, 何心法設, 何典章乎心法也. 典章也, 載之竹帛布在方冊.
故視爲可則信如金石. 惟我聖教之傳, 亦有經典 而來也. 自開國以來史不絶, 書古經新經,
班班可考. 至今家誦而戶絃, 汗牛而充棟, 曾少無舛錯我國之人.

왜 성경을 증거로 말했을까요? 고대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무왕, 문왕, 주공, 공자 같은 성인들의 이야기도 경전과 역사서를 통해 전해오는데, 만약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요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문왕, 무왕, 주공, 공자가 어떤 심법(心法)을 전수했고, 어떤 법도를 세웠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심법이며 법도를 대쪽과 비단에 써놓고 책에 적어 놓았기에, 읽고 본받으며 금석처럼 단단히 믿는 것이지요. 우리 천주교에도 역시 경전이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천지개벽(天地開闢) 이후로 역사의 기록이 끊어지지 않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도 집집마다 암송하고 거문고로 노래하여 왔습니다. 소가 땀을 흘릴만큼 실어다가 집에 채우더라도 해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What, then, is the Sacred Scripture? Just as the teachings of the ancient Chinese sages Yao, Shun, Yu, Tang, Wen, Wu, the Duke of Zhou, and Confucius have come down to us through the *classics* and the *histories*, so too do we know what they taught and what institutions they founded only because their words were written and preserved. If these writings had not existed, who would know the wisdom they left behind, or the laws they established? Their principles of the heart and their ordinances were inscribed on bamboo and silk, set down in books, and thus men looked upon them as trustworthy, firm as metal and stone. In like manner, the truths of our holy faith have also been handed down through Sacred Scripture. From the creation, the record of God's dealings with mankind has never ceased. Thus, we have before us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Even today these sacred books are recited in households, sung among families, studied by the faithful in such abundance that they might fill houses and burden oxen with carrying their weight. Yet in all their vastness there is not the least error for us.

以此等文字, 不少概見於中國經史疑焉. 中國經史亦不云乎. 易曰以享上天, 詩曰昭事上帝, 書曰禋于上帝, 夫子曰獲罪于天無所禱也. 有所謂敬天畏天順天奉天之說.

雜出於諸子百家之書, 是何患乎西史之不來.設或西史之來, 雖在上古而堯之洪水, 秦之刼火湮滅 無傳必矣. 迨至孫吳, 赤烏年間, 得鐵十字, 唐之貞觀九年, 景教大治. 上自朝箸, 下至草野, 一濟崇事刱祭祀, 立景教碑. 大賢如魏徵, 房玄齡, 篤信而無疑. 大明萬曆年間, 西士來遊, 多著述至今流傳於中國. 上主默祐東方, 東邦之幸同福爲奇, 今焉五十有餘 年矣. 此以聖經, 而知有主宰也.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에서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의심하지만,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역(周易)》에서는 "하늘께 드린다"고 했고, 《시경(詩經)》에서는 "하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으며, 《상서》에서는 "하늘께 제사드린다"고 했고, 또 공자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어 볼 곳이 없다"고 했으며, 이른바 하늘을 공경한다, 하늘을 두려워한다, 하늘에 순종한다, 하늘을 받든다는 말들이 제자백가(諸子百家)들의 글에 뒤섞여 실려 있으니, 서양(西洋)의 역사가 전래해 오지 않는 것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설령 서양의 역사가 저 먼 옛날에 전래되어 왔더라도 요임금 시절의 홍수와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인해 아주 없어져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삼국시대 손권(孫權)의 오나라에서는 적오년간(赤烏年間)에 철십자가를 전해 받았고, 당나라 정관(貞觀) 9 년에는 경교(景教)가 크게 성행하여 조정의 대신들로부터 초야(草野)의 백성들까지 모두 받들어 섬겨, 크게 제사를 드리고 경교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위징(魏徵)이나 방현령(房玄齡) 같은 어진 사람들도 독실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 명나라 만력년간(萬歷年間)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많은 저술을 남겨 오늘날까지도 중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주께서 묵묵히 동방(東邦)을 도우시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다행히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이제 50 여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Some doubt, saying: "Such writings are not found in the Chinese classics or histories." But in truth, do not the Chinese classics and histories themselves speak of these things?

The *Book of Changes* says: "Offer sacrifice to Heaven."
The *Book of Songs* says: "Serve the Heaven with reverence."
The *Book of Documents* says: "Offer solemn sacrifice to the Heaven."
Confucius said: "If one has offended Heaven, there is nowhere to pray."

And so, we hear of revering Heaven, fearing Heaven, submitting to Heaven, serving Heaven such saying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writings of the various philosophers and schools. Why, then, should it be a concern that the histories of the West have not been preserved? Even if Western history had come earlier, it surely would have been lost amid Yao's great flood or consumed in Qin's burning of the books. Yet later in Chinese' Three Kingdom era, in the time of Sun Quan of Wu, during the Chiwu era, a cross of iron was obtained. In the Tang dynasty, in the ninth century of Zhenguan, the "Luminous Religion" (Nestorian Christianity) flourished greatly. From the court nobles to the common people, all revered it, offered sacrifices, and even erected the Nestorian Stele. Great ministers such as Wei Zheng and Fang Xuanling believed firmly and without doubt. In the Ming dynasty, during the Wanli reign, Western scholars came to China, writing many books that are preserved to this day. Thus has the Lord silently guided the East, so that in wondrous providence our own land too has shared in the same blessing for more than fifty

years. Therefore, through Sacred Scripture we know that there is indeed a Sovereign who rules all things.

擧此三證, 旣然明知有主宰則當知, 上主聖造天地萬物, 將欲通其福顯其德, 造天而覆我, 造地而載我, 造日月星辰光照我, 草木, 禽獸, 金銀銅鐵, 享用我, 自出母胎, 至於長成, 種種洪恩, 如是罔涯, 人之本分, 當如何哉. 若戴天履地, 而穿吃而已, 則孤負生民之洪恩, 莫此爲甚也. 譬如爲人父者, 造房屋辦産業, 給其子享用, 其子處其房屋, 用其産業肆然, 自大不知事親之道, 報本之意則孝乎不孝乎.

위의 세 가지 증거를 통해 이미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천주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어 그의 복을 두루 내리고 그의 덕을 드러내고자 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만들어 내 위를 덮어주고, 땅을 만들어 내 발을 받쳐주며,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빛으로 나를 비춰주며, 초목과 날짐승, 길짐승이며 금, 은, 동, 철을 나에게 쓰라고 주셨으니, 우리가 모태로부터 나와 성장하기까지 하고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이처럼 끝이 없거늘, 사람된 본분이 응당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이고 땅을 밟아 그것을 갈아 먹고 살 뿐이면서, 낳아주신 큰 은혜를 저버림이 이처럼 막심합니다. 비유해 보건대, 아비가 집을 짓고 살림을 장만하여 그 아들에게 쓰라고 주었는데, 아들은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살림을 사용하면서 거만하게 스스로 대단한 듯 여기고, 부모 섬기는 것과 은혜에 보답할 줄을 모른다면, 효자이겠습니까? 불효자이겠습니까?

From these three proofs, we can clearly know that there is indeed a Sovereign. Therefore, we must also understand: the Lord God,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and all things, wished to share His blessings and manifest His goodness.

He created the heavens to cover us, the earth to support us, the sun, moon, and stars to shine upon us; He made plants, birds, beasts, gold, silver, copper, and iron for our use. From the moment we came forth from our mother’s womb until our full growth, we have received countless and boundless favors.

What then should be the duty of man? If one only wears the heavens as a roof and treads the earth as a floor, merely consuming and using, then truly there is no greater ingratitude than this, to betray so great a gift of life.

It is like a father who builds a house and provides an estate for his son to enjoy. If the son lives in the house, uses the estate, and becomes proud and self-important, yet knows nothing of honoring his parents or repaying their kindness would he be called filial, or unfilial?

人之處世, 秋毫皆帝力也. 生養助顧之, 保護引導之, 身後受賞存, 而勿論現受之, 恩已極無比. 吾人之没身, 奉事當如何, 而可答萬一也. 奉事之道, 非高遠難行之事, 非索隱行怪之類也. 但改過自新, 遵帝誡命而已.

사람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모두 천주의 힘입니다. 낳아서 길러주고 도와 보살피시고, 보호하여 이끌어 주시며, 죽은 뒤에 상을 받는 것은 더 따지지 않더라도, 살아서 지금 받은 은혜도 이미 지극하여 비길 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까지 받들어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만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받들어 섬기는 것이란 전혀 터무니없이 행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며, 이상한 것을 찾아 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난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계명(誡命)을 따르는 것일 뿐이지요.

The life of man in this world, down to the smallest detail, depends wholly on the power of the Lord. He has given us birth, sustained and nurtured us, aided and cared for us, protected and guided us. Even if we were to set aside the reward that awaits after death, the blessings we have already received in this life are beyond measure, beyond comparison. What then should be our service to Him, that we might repay even a fraction of such boundless favor? This service is not high and remote, not a task too difficult to carry out. Nor does it consist in seeking hidden mysteries or performing strange and unusual acts. It is simply this: to turn from our past faults, to begin anew, and to follow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誡命者何, 上主默喻之十誡也.

一, 欽一天主萬有之上.

二, 無呼天主聖名以發虛誓.

三, 守瞻禮之日.

四, 孝敬父母.

五, 毋殺人.

六, 毋行邪淫.

七, 無偷盜.

八, 妄證.

九, 毋願他人妻.

十, 毋貪他人財.

계명이란 천주께서 계시로서 가르쳐 주신 열 가지 계명입니다.

첫째는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萬有) 위에 흠숭(欽崇)하고,

둘째는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거짓 맹서를 하지 말고,

셋째는 첨례날을 지키고,

넷째는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다섯째는 살인하지 말고,

여섯째는 사음(邪淫)을 행치 말고,

일곱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여덟째는 거짓 증언을 말고

아홉째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변째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What are the commandments? They are the Ten Commandments, which the Lord has given us by divine revelation.

First, To worship the one true God above all created things.

Second, Not to invoke the holy name of God in vain oaths.

Third, To keep holy the Lord’s day.

Fourth, To honor and respect one’s father and mother.

Fifth, Not to kill.

Sixth, Not to commit adultery.

Seventh, Not to steal.

Eighth, Not to bear false witness.

Nineth, Not to covet another man's wife.

Tenth, Not to desire another's goods.

右十誡摠歸二者, 愛天主萬有之上, 及愛人如己. 上三誡 昭事之節目也. 下七誡, 修省之工夫也. 顔氏之四勿, 載記之九思, 不足比方, 忠恕孝悌仁義禮智, 包括這裡有, 何一毫不足處乎. 以是道而行乎一家, 則家可齊矣. 行乎一國, 則國可治矣. 行乎天下, 則天下可平矣.

이 열 가지 계명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돌아가니, 즉 천주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남을 자기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 계명은 천주를 흠숭하여 섬기는 절차요, 아래 일곱 가지는 자기를 닦고 성찰하는 공부입니다. 안씨(顔氏)의 사물(四勿)이나, 대기(戴記)의 구사(九思)가 이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충성과 용서와 효도와 우애와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이 안에 들어 있어 터럭만치도 부족된 데가 없습니다. 이 도를 한 집안에서 실행하면 집안이 정돈될 것이요, 한 나라에서 실천하면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요, 온 천하가 실행하면 온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다.

The Ten Commandments can be summed up in two: to love God above all things, and to love one's neighbor as oneself. The first three commandments concern the proper worship and service of God. The remaining seven are the discipline of self-cultivation and conduct. The "four don'ts" of Master Yan (Confucian Analects 12:1) and the "nine reflections" of the Book of Rites cannot compare to this. For within these commandments are contained loyalty and forbearance, filial devotion and brotherly love, and the virtues of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There is not the slightest deficiency in them. If this Way is practiced in one household, the household will be well-ordered. If practiced in one nation, the nation will be well-governed. If practiced in all under heaven, the whole world will be at peace.

十誡之中, 不可犯一, 而非徒身犯, 尤禁心犯. 大凡人之過失, 作於其心. 害於其事, 治世之法, 可治其事, 不治其心, 天主之誡, 非徒治其事, 亦治其心, 然而人心惟危, 道心惟微頃刻犯罪, 私慾偏情百方引誘, 誘以驕傲, 誘以憤怒, 誘以貪饕, 誘以邪淫, 誘以嫉妬, 誘以慳吝, 誘以懈怠. 陷人於必死之地. 苟不時時警斥刻刻攻退則不免於羅穿.

終身相戰戰無移時戰勝則成功, 不勝則抵罪, 功罪之判卽身死之日也.

天主至公無善不報天主至義無惡不罰. 若身死之後, 魂亦隨滅, 則賞也罰也, 施於何所乎. 又當知, 靈魂之不滅也.

열 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할 수 없으며, 몸으로 범하기 뿐만 아니라 더욱 마음으로 범함을 금합니다. 무릇 사람의 잘못은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서 그 행동을 그르칩니다. 대개 사람들의 과실이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 일을 해치는 것인데, 세상의 법은 그 일은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은 다스리지 못하고, 하느님의 계명만이 그 일을 다스릴 뿐 아니라 또한 그 마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위태롭고, 도리란 희미해서 잠깐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사사로운 욕심과 그릇된 감정이 곳곳에서 유혹을 합니다. 교만으로 유혹하고, 분노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요사스러움으로 유혹하고, 질투로 유혹하고, 인색함으로 유혹하고, 게으름으로 유혹하기도 하여, 죽어 없어지고 말 곳으로 사람을 빠뜨립니다. 정말 이런 유혹들을 시시각각으로 경계하여 물리치지 않는다면, 죄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유혹과 싸우되, 싸울 적마다 잠시도 느슨해서는 안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공적을 이룰 것이요 이기지 못하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공적과 죄악의 판결은 몸이 죽는 날 내려질 것이니, 천주께서는 지극히 공정하셔서 선행이 없으면 보답해 주지 않으시며, 천주께서는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어서 악행이 없으면 벌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몸이 죽은 뒤에 영혼이 따라서 사라진다면, 상이며 벌을 누구에게 내리겠습니까? 이는 또한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Among the Ten Commandments, not even one may be transgressed. And it is not only bodily transgression that is forbidden, but even more so transgression in the heart. Every sin begins within. From the heart it springs, and from there it corrupts our actions. Worldly laws can restrain deeds, but they cannot govern the heart.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however, govern not only deeds but also the heart itself. Yet the human heart is precarious, and the way of righteousness is subtle: in a single moment one may fall into sin. Private desires and distorted passions draw us in every direction: temptation to pride, temptation to anger, temptation to greed, temptation to lust, temptation to envy, temptation to stinginess, temptation to sloth all of which drag man toward the pit of death. Unless one constantly keeps watch and resists them at every moment, one cannot escape falling into the net of sin. Therefore, throughout life we must battle without ceasing: if we prevail, we gain merit; if we fail, we incur guilt. The judgment of merit or guilt is rendered on the very day of death. No good remains unrewarded for God is perfectly just;

and no evil remains unpunished for God is perfectly righteous. But if the soul were to perish along with the body, to whom could reward or punishment be given? Therefore, we know with certainty: the soul does not perish.

盖魂有三焉, 一生魂, 二覺魂, 三靈魂也. 生魂者草木之魂也, 能長生而無知覺.

覺魂者禽獸之魂也, 能知覺而不知義理也是非也. 靈魂者人之魂也.

能生能長能知能覺能分辨是非能推論道理. 於萬物之中,

惟人最貴所貴乎人者以其魂之靈也. 卽所謂天命之謂性, 而賦界于胎中者也.

烏可與草木禽獸, 同歸於 朽腐乎.

대개 혼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생혼(生魂)이요, 둘째는 각혼(覺魂)이요, 셋째는 영혼(靈魂)입니다. 생혼이란 초목(草木)에 있는 혼으로서 나서 자라기는 하지만 알고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요, 각혼이란 짐승들에게 있는 혼으로서 알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의로운 이치와 옳고 그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란 사람이 지닌 혼으로서 나게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알고 깨닫도록 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도리를 따질 수 있게도 해줍니다. 만물 가운데서 오로지 사람이 가장 귀한데, 사람을 귀하에 여기는 것은 그 혼이 영험한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하늘이 부여해 준 성품으로서, 태중에 있을 때 주어진 것이니, 어찌 초목이나 짐승들과 같이 썩어 없어져 버릴 수 있겠습니까?

In general, the soul is spoken of as threefold:
first, the *vital soul* (生魂),

second, the *sensitive soul* (覺魂),

third, the *rational soul* (靈魂).

The vital soul is that of plants: it enables growth and life, but has no knowledge or awareness.
The sensitive soul is that of animals: it enables perception and awareness, but not understanding of moral principle or discernment of right and wrong.
The rational soul is that of human beings: it enables life and growth, knowledge and perception, judgment between right and wrong, and reasoning about truth.

Among all creatures, only man is supreme, and what makes him most precious is the spirituality of his soul. This is what is meant by “the decree of Heaven is called human nature,” and it is bestowed already in the womb. How, then, could the human soul end in the same decay as plants and beasts?

先儒亦知, 魂之有三, 而靈之不滅. 故曰, 三魂屢散.

又魂升, 魄降, 其魂有三焉.

而靈魂之不死明矣. 旣爲不死不滅, 則究竟何徃. 善者靈魂升天, 而受賞惡者靈魂入地, 而受罰賞者天堂之永福, 罰者地獄之永苦也. 若以不見天堂, 不見地獄, 不信其有堂獄, 則是何以異於瞽者之不見天, 而不信天有日也哉. 事之合理者不見, 而可信不合於理者, 雖見不可信也. 故事之可信與不可信, 不係於見不見, 而惟在於合理與不合理而已. 苟能合理, 則千歲之日至可坐而致之也. 奚必於吾身親見之哉.

선유(先儒)들 또한 혼이 세 가지가 있고 영이 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삼혼은 여러 번 흩어진다." 또는

"혼은 올라가고 백은 내려간다."

"혼은 세 가지가 있다." 고 말하였으니, 영혼이 죽지 아니함은 맹백합니다. 이미 죽지도 않고 살아 있지도 않다면 필경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착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의 영혼은 땅으로 들 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천당의영원한 행복이요, 벌이란 것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만약 천당을 보지 않고 지옥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천당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면 눈먼 자가 하늘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하늘에 해가 있음을 믿지 아니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이 이치에 합당하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비록 보일지라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 음은 보고 못 보는 데에 매이지 않고, 다만 이치에 합당함과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에 있을 따름입니다. 실로 이치에 합당하면 천 년 뒷날이 올 것을 가만히 앉아서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 하필 내 몸소 친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The earlier sages also knew that the soul is threefold and that the spirit does not perish.
Hence they said, "The three souls disperse repeatedly."
Again "The *hon* (spiritual aspects) ascends, the *baek* (bodily aspects) descends,"
and "the soul has threefold aspects." Thus, the immortality of the spiritual soul is plain.

Since it does not die nor perish, where ultimately does it go? The righteous soul ascends to heaven and receives reward; the wicked soul enters the earth and receives punishment. The reward is the eternal happiness of heaven; the punishment is the eternal torments of hell. If one will not believe in heaven and hell because one has not seen them, is that any different from a blind man not seeing the sky and therefore refusing to believe that the sun exists? Things that accord with reason can be believed without seeing; things that do not accord with reason cannot be believed even if seen. Therefore whether something is believable or not does not depend on seeing or not seeing, but on whether it is reasonable or not. If a matter is reasonable, then one can know that it will come to pass even a thousand years while sitting still; hence why must I insist on seeing it with my own eyes?

夫一國之中, 必有賞罰, 有功者陞之縻以爵祿, 給以金帛. 有罪者黜之囚之, 犴狴施以力鉅,

一國之君尙有賞罰之權. 況天地大君乎, 其賞非世間爵祿之可比, 而永遠無窮之福也.

其罰非世間狂狴力鉅之可比而, 永遠無盡之苦也. 升降一定更無移.

대개 나라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는 법인데, 공을 세운 자는 승격시켜 벼슬을 주고 상금을 내리며, 죄를 지은 자는 내몰아 감옥에 가두어 형벌을 내리지요.

나라의 임금도 상벌의 권한을 갖고 있거늘 하물며 천지의 대군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상이란 이 세상의 벼슬이나 상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무궁한 복락이요, 그 벌이란 세상의 감옥이나 형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무진한 고통이랍니다.

하늘로 오를지 땅으로 내려갈지 한 번 정해지면 다시는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In every nation there must be reward and punishment. Those who are worthy are promoted and bound with rank and stipend, given gold and silk. Those who have sinned are stripped of rank and imprisoned or heavy punishments (death) are applied. Even the ruler of a country has the power of reward and punishment. How much more, then, the Great Lord of heaven and earth? His rewards are not comparable to the world's offices and stipends but are everlasting and boundless blessings. His punishments are not comparable to worldly scourges and heavy penalties but are everlasting and endless torments. Once one's ascension or descent is fixed, it is certain and does not change.

嗚呼, 世人明知靈魂之不死, 而不知居於何所, 豈不哀哉. 然有永賞永罰,

則世事虛幼以可知矣.

오호라! 세상 사람이 영혼이 죽지 않음을 환하게 알면서도 영혼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인 줄을 모르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미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이 있은즉 세상의 일이 헛된 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Alas! People in this world clearly know that the soul does not die, yet they do not know where it abides, is this not pitiable? But since there are eternal rewards and eternal punishments, then it is evident that worldly affairs are fleeting and vain.

人壽多, 不過百年, 而汨於利, 慾傷中未得之, 患得之, 旣得之患失之, 不知老之,
將至此身一死, 當貴功名竟歸虛地. 况富貴功名一生求之不得者乎,何其塵夢之難醒也.

사람의 목숨이 길어야 불과 백년인 것을, 이익과 욕심의 구렁에 빠져 얻지 못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고민하고 이미 얻었으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근심하다가 늙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지냅니다. 이 몸 한 번 죽어버리면 부귀공명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요, 게다가 일생토록 구해도 다 얻지 못할 부귀공명이란 또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어찌 그리도 앞이 가려져 깨닫기 어려운 것인가요?

A man's lifespan, long though it be, does not exceed one hundred years. Yet he drowns himself in profit and desire: when he has not yet obtained them, he worries over how to gain them; when he has obtained them, he frets over losing them. He does not realize that old age is drawing near. When this body dies but once, all wealth, honor, and fame return to emptiness. All the more so for those who, though they spend a lifetime pursuing wealth and honor, never attain them. How truly hard it is to awaken from this dusty dream?

嗚呼, 世福缺, 而不全天福全, 而不缺世福暫, 而不永天福永, 而不暫與其求缺,
且暫之世福曷若求全, 且永之天福乎.

아! 세상의 복은 완전하지 못하나 천상의 복은 완전무결하며, 세상의 복은 잠깐 지나는 것이나 천상의 복은 영원한 것이니, 불완전하고 잠깐 지나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복을 구하는 것과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Ah! The happiness of this world is always incomplete, but the joy of heaven is perfect and lacks nothing. Earthly fortune is fleeting, but the blessing of heaven endures forever. How then could the pursuit of imperfect and passing worldly fortune be compared with the pursuit of perfect and everlasting heavenly beatitude?

雖未得天堂之永福, 若無地獄之後患, 則暫世暫榮容或可圖, 而奈此地獄之永罰何哉.
在世之時, 朦然不覺, 身死之後, 悔之何及, 是以斧鉞在前鼎鑊在後, 而毅然不屈者代不乏人.
此足爲眞教之一證.

비록 천당의 영원한 복락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지옥에 떨어지는 후환만 없다면, 잠깐 사는 세상 짧은 영화도 한번 누려 볼 만하겠지만, 지옥의 영원한 벌이 엄연히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다가 죽은 뒤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도끼들이 앞에 놓여있고 끓는 솥이 뒤에 있어도 의연하게 뜻을 굽히지 않는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Even if one were to fail of heaven's everlasting joy, were there no doom of hell afterward, then perhaps the brief splendors of this life might be worth seeking. But the reality of eternal punishment in hell makes that impossible. Thus, even with the axe before them and the boiling cauldron behind, countless martyrs have stood firm without faltering. Their steadfast witness is itself compelling proof of the religion's truth.

一言弊曰, 至聖, 至公, 至正, 至眞, 至全, 至獨, 唯一無二之教也.

이것은 천주교를 참된 교(教)라 할 수 있는 한 증거이니,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하고 공번되고 지극히 정의롭고 지극히 참되며 지극히 완전하고 오로지 홀로이며 유일무이한 교인 것이지요.

In one word, it is the most holy, most just, most righteous, most true, most perfect, unique and without equal faith.

何謂至聖之教會, 天主親立之教也. 自古列聖, 繼繼相承闡其義理, 定其規矩,
而至致命以證之可謂至聖矣.

그러면 어째서 지극히 거룩한 교회(教會)라고 말할까요? 천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서 예로부터 여러 성인(聖人)들이 끊임없이 서로 이어 그 올바른 이치를 천명하고 그 법도를 바로 세워 목숨까지 바치며 증거하였으니,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Why is it called the Most Holy Church? Because it is the Church that God Himself established. From ancient times the saints hav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nded down its truths, clarified its doctrine, and fixed its discipline. Even to the shedding of their blood they have borne witness; therefore, it may rightly be called Most Holy.

何謂至公, 無論貴賤賢愚男女老少, 東西南北之人. 皆可當行之道也, 可謂至公.

어째서 지극히 공번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귀인, 천인,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남녀노소, 동서남북의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니, 지극히 공번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Why is it called Most Universal? Because whether noble or base, wise or foolish, male or female, old or young, whether from east, west, south, or north; all are equally bound to walk this way. Therefore, it may be called Most Universal.

何謂至正, 廣大明白, 蕩蕩平平, 無一毫偏依之行, 回正之事, 可謂至正矣.

또 어째서 지극히 정의롭다고 하는 것일까요? 광대명백하고 탕탕평평해서 조금도 잘못된 행동이나 어긋나는 일이 없으니, 지극히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Why is it called Most Righteous? Because it is vast and clear, broad and level, without even the slightest bias or crookedness in its conduct or its ordinances. Therefore, it may be called Most Righteous.

何謂至眞, 天下未有無教之國, 而教不眞者多矣. 老莊失之於虛無, 仙佛失之於幻妄, 外此百家方術, 不足掛齒, 而聖教道理則眞實無僞永不舛錯可謂至眞矣.

어째서 지극히 참되다고 하는 것일까요? 천하에 종교없는 나라가 없건만, 참되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허무함을 가르쳐서 잘못이고, 신선과 부처는 황당함으로 해서 잘못되었으며, 이외에 제자백가들의 술수는 족히 입에 올릴 것도 못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도리는 진실되고 거짓이 없어 전혀 어긋나지 않았으니, 지극히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Why is it called *Most True*?
Under heaven there has never been a nation without some teaching, yet many of these teachings are not true. Laozi and Zhuangzi erred by falling into emptiness and nothingness. The Immortals (Daoists who achieved transcendence) and the Buddha erred by clinging to illusion and delusion. As for the arts and techniques of the hundred schools besides these, they are not even worth mentioning. But the doctrine of the Holy Religion is genuine and without falsehood, never deviating nor going astray; therefore, it may rightly be called *Most True*.

何謂至全, 譬於草木, 異教則或有幹而無枝, 或有葉而無花, 或有花而無實, 首尾不能相連,
終始不能接續, 而惟聖教則有幹有枝有葉有花有實. 天地鬼神人事之始末,
已往現在未來之前後, 渾然畢具可謂至全矣.

어째서 지극히 완전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초목(草木)에 비유하건대, 다른 종교들은 혹 갈래는 있으나 가지가 없으며, 혹 잎은 있는데 꽃이 없으며, 혹 꽃은 있으나 열매가 없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오직 천주교는 갈래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으며, 천지(天地), 귀신(鬼神), 인사(人事)의 전말과 과거, 현재, 미래의 앞뒤가 가득히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지극히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What is meant by “most perfect”? To illustrate with plants: other teachings may have a trunk but no branches, or have leaves but no flowers, or have flowers but no fruit. Thus their head and tail cannot be connected, their beginning and end cannot be joined.
Only the Catholicism has trunk and branches, leaves and flowers, and fruit. Concerning heaven and earth, spirits and men, the beginnings and ending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ll are fully and completely contained therein. This may be called most perfect.

噫, 指金玉, 而强謂之瓦礫, 用蓼蓌, 而强謂之糟糠, 亦將奈何. 又曰, 無父無君,
不知聖教之義也. 十誡之第四, 孝敬父母夫, 忠孝二字, 萬代不易之道也. 養志, 養體,
人子之當然, 而奉教之心, 尤功謹愼. 故事盡其禮, 養盡其力, 忠移於君許身,
殞命赴湯蹈火有不敢避. 不如是則, 有違教誡, 此果無父無君之學耶.

그런데 애통하게도 금과 옥을 가리켜 억지로 기와조각이라 하고 맛난 음식을 찌꺼기라고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또한 애비도 없고 임금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헐뜯는데, 이것은 천주성교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계 중 네 번째에 “부모를 효성으로 공경하라” 했으니, 충효(忠孝) 두 글자는 만세대 동안 변하지 않는 도리입니다. 부모의 뜻과 몸을 봉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것이요, 교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께 예의를 다해 섬기고 힘을 다해 봉양하는 것이 임금에 대해선 충성이 되어 목숨을 바치며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도 감히 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과연 애비도 없고 임금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How lamentable it is! To look upon gold and jade and insist they are mere rubble; to take nourishing food and call it left over rubbish. Some accuse Christians of being people “without father or king.” But this shows they do not understand the teaching of the Holy Church. For in the Ten Commandments the fourth commands: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Filial piety and loyalty are eternal duties that no age can abolish. To support and care for one’s parents is the natural duty of a child; for those who live by the Faith, it is to be carried out with even greater care and reverence. Thus, Christians show courtesy in all things and provide for their parents with all their strength. And their loyalty to their sovereign is such that they would even give their lives, not shrinking from fire or sword. To do otherwise would be to break the very Commandments. How then can anyone claim that this faith teaches people to be without father or king?

但國君禁之, 而民有行之者, 家父禁之, 而子有行之者, 其以是說而然歟. 是亦有說焉.
位有尊卑事有輕重, 一家之中, 家父最重, 而尊於家父者國君也. 一國之中, 國君最重,
而尊於國君者, 天地大君也.

다만 임금이 금지했는데도 백성들이 행하고, 아비가 금지했는데도 자식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이 또한 해명할 것이 있습니다. 지위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일에는 가볍고 중한 것이 있으니,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중하지만, 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은 임금입니다. 또 한 나라에서 임금이 가장 중하지만, 임금보다 높은 것은 천지대군입니다.

Is it then because the king has forbidden the Faith, yet some subjects still follow it? Or because a father has forbidden it, yet his child continues in it, that people accuse Christians of disregarding authority? This also must be explained. Every order has its rank, and every duty its weight. In the family, the father holds the greatest authority, yet above the father stands the sovereign. In the nation, the sovereign is supreme, yet above even the sovereign is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聽家父之命, 而不聽國君之命, 則其罪重矣, 聽國君之命, 而不聽天地大君之命,
則其罪尤極無比. 然則, 奉事天主, 非欲故違君命, 出於不得已者. 擧此一者,
遂謂之無父無君可.

아버지의 명을 따르면서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죄가 무거울 것이요, 임금의 명을 따르되 천지대군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죄가 비길 바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를 받들어 섬기자는 것이지, 일부러 임금의 명을 어기고자 한 것이 아닌 부득이한 것이었느니,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애비도 없고 임금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If one obeys the command of the father but does not obey the command of the ruler, his guilt is heavy. But if one obeys the command of the ruler and does not obey the command of the Great Lord of Heaven and Earth, his guilt is immeasurably greater. Therefore, in serving the Lord of Heaven, it is not out of a willful desire to disobey the king's command, but rather from necessity. Can one, on this single account, accuse Christians of being without father and without king?

又曰, 通貨色夫, 通貨者, 自古有國有家者, 不可一日, 無之之事也. 有無相通,
然後生民相資而生也. 若無通貨之法, 則一國之中生者幾何, 此其不美之法也.
反爲可禁之事耶.

또 재화(財貨)를 유통(流通)하고 색정(色情)을 나눈다고 말하는데, 재화를 유통시키는 것은 자고로 국가에서는 하루라도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서로 유통해야 백성들이 서로 도움받아 살아갈 텐데, 만약 재화를 유통시키는 일이 없다면 온 나라 안에 살아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장차 불미스러운 법인데, 오히려 금지시켜야 할 일이겠습니까?

Again, they say: "You traffic in goods and indulge in lust." But as for the circulation of goods, since ancient times in every state and household it has never been possible to be without it, even for a single day. Only when what is lacking and what is in excess are exchanged, can the people sustain one another and live. Without the circulation of goods, how many within the nation could even survive? If this be considered an unbecoming practice, is it not rather something that ought not be forbidden?

所謂通色者, 禽獸尙有不然者, 况歸之於聖教哉. 十誡之第六曰無行邪淫,
第九曰無願他人妻, 第六誡以身犯之也. 第九誡以心犯之也. 聖教之嚴禁邪淫, 如是重復,
而反以通色之說加之, 豈有如此逆倫亂常之教乎.

또 이른바 색정을 나누는 것은 짐승들도 오히려 그러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천주성교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비난을 하는 것입니까? 십계명 중 여섯번째에 “음사한 짓을 하지 말라”고 했고, 아홉번째에 “남의 아내를 바라지 말라”고 하였으니, 여섯번째 계명은 몸으로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요. 아홉번째 계명은 마음으로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천주교가 음사한 것을 엄격히 금하기를 이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도리어 색정을 나눈다는 소문을 들씌우니, 어디에 이처럼 윤리를 더럽히고 법도를 어지럽히는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As for the charge that Christians “indulge in lust,” even animals refrain from such depravity. How then could such shameful behavior be ascribed to the Church of God? The Sixth Commandment commands,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and the Ninth,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The Sixth condemns sins of the body, the Ninth sins of the heart. Thus, the Church, repeating this prohibition, shows the utmost severity in condemning impurity. To accuse Christians, therefore, of spreading lust is nothing but slander. What kind of teaching slanders such perfect and true teaching on morality?

道之眞假, 事之曲直, 置之一邊, 以不近不當之說, 排之擠之, 豈非以外國之道而然歟.

金不擇地, 惟精是寶, 道不拘方, 惟聖是眞以其道之傳, 豈有此疆彼界之畦畛也.

中國則各國之人物, 往來相通, 沙門之學任之所爲, 外國之人多有來居, 而曾不知禁也.

도리가 참된지 거짓된지, 사리가 굽은지 곧은지 여부는 구석에 던져두고, 얼토당토 않은 말로 밀치고 막는 것은 어쩌면 외국의 도(道)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금이 산지(産地)에 관계없이 순도(純度)만 좋으면 보배가 되듯, 도리 역시 지역에 구애됨 없이 성스러우면 참된 것이지요. 그러니 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이 땅 저 땅의 경계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여, 불교도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머물러도 일찍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As for whether a doctrine is true or false, or whether a matter is crooked or straight, to cast this aside and oppose it with words that are unfounded and improper, could this not be merely because it is a teaching from a foreign land? Just as gold, regardless of its place of origin, is precious only by its purity, so too the Way does not depend on region, but only on holiness is it true. In the transmission of the Way, how could there be divisions of “this boundary” and “that frontier”? In China, people of various nations come and go in exchange, even academic pursuit

of Buddhism is left allowed, and many foreigners there come to dwell there, and yet there has never been any prohibition.

至於我國, 佛道之爲害久矣. 八路梵宮釋殿最極奢侈, 金佛銅像浪費財力.

彼佛氏者西域中異端也. 剽竊聖教之文字, 依樣聖教之規矩, 義理舛錯倫紀絶倒,

此所謂亂朱之紫, 亂苗之莠也. 虛張禍福, 恐喝愚民, 今成怪弊.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폐단(弊端)이 오래되어, 전국의 절과 사찰들은 아주 사치스럽고, 금불상과 동상을 만드는 데에 재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 불교란 서역(西域)의 종교 중에서도 이단(異端)이지요. 천주성교의 문자를 표절해 쓰고 법도(法度)를 모방했으나, 뜻과 이치는 비뚤어져 어긋났고, 윤리와 기강은 뒤집혔으니, 이야말로 붉은색을 흐려놓는 자주색이요, 벼를 망치는 가라지입니다. 화복을 가장하고 백성을 공갈쳐서 이젠 괴상한 폐단이 되었습니다.

As for our country, the harm caused by Buddhism has been long-standing. Throughout the land, Buddhist temples and monasteries are exceedingly extravagant, and the making of golden and bronze statues wastes great amounts of wealth. That sect of the Buddha is itself a heterodoxy from the Western Regions. It plagiarized words from the true faith and imitated its outward forms, yet twisted their meaning and overturned right order and morality. It is like a counterfeit dye that dulls the brightness of true red, or weeds that choke the grain. By fabricating promises of fortune and threats of disaster, it has long deceived the simple and oppressed the people, becoming a source of grave corruption and harm.

至於巫覡, 風水, 筭命, 看相等人誕惑婦孺侵漁錢財視若平常,

而聖教則獨不蒙包容之恩何哉. 爲害於家乎, 爲害於國乎, 觀其事而察其行,

則可知其人之如何 其道之如何, 此輩曾爲不軌乎, 曾爲偷乎, 曾爲奸淫乎, 曾爲殺越乎.

무당, 풍수쟁이, 점쟁이, 관상쟁이들이 부인들을 꾀어 돈과 재물을 빼앗아가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서, 천주교만 유독 포용의 아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집안에 해가 되어서입니까? 나라에 해가 되어서입니까? 그 하는 일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지키는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역이라도 꾀했습니까? 음란한 짓이라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As for shamans, geomancers, fortune-tellers, and physiognomists, who beguile women and children and seize their money and property and yet such practices are tolerated as though harmless. Yet why is it that only the Catholicism does not receive the favor of tolerance? Is it because it brings harm to families? Is it because it brings harm to the nation? By observing its deeds and examining its conduct, one may know what kind of people its adherents are, and what kind of way it is. Have we ever plotted rebellion? Have we ever stolen? Have we ever committed adultery? Have we ever committed murder?

又多法外施行, 使之背返天主. 夫天主, 乃萬物之大父母, 大主宰也, 古昔聖賢, 昭事對越,

今之人, 何故詬罵凌辱當此. 饑饉荐臻家國困悴之際, 惟我嗣王霄衣旰食,

發政施仁好生之德, 洽于民心.

또한 법에도 없는 일을 베풀어서 천주를 배반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릇 천주께서는 만물의 큰 어버이요, 큰 주재자이십니다. 옛날의 성현들께서는 천주께 일을 아뢰고 마주 대하였는데, 오늘날의 사람은 어찌한 까닭으로 욕설을 하며 모독을 하여 거듭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나라가 곤궁에 지친 바로 이 때에 바라옵건데 우리 임금님께서는 밤에도 옷을 벗지 않으시고, 제 때에 진지를 못 드실만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시고 어지심을 베푸시어, 백성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옵소서.

Furthermore, unlawful measures are imposed that lead people to turn their backs on the Lord of Heaven. The Lord of Heaven is the great Father and Mother of all things, the great Sovereign and Ruler. In ancient times, the sages and worthies reverently served Him and stood in His presence. Why is it, then, that people today heap insults and revile Him? Because of this, famine has repeatedly come, and households and the nation alike are worn down in hardship. At such a time of distress, may our reigning king, clothed even at night and neglecting meals in his diligence, issue just governance and extend benevolence, cherishing the virtue of loving life, so that the people may be satisfied in heart.

噫, 彼聖教之人獨非吾王之赤子耶. 哀此, 人斯何至此極而不少恤哉. 獄中之斃, 門戶之斬,

連續不絶, 泣血成渠哭聲漲天, 父呼其子, 兄呼其弟, 如窮人之無所歸, 淸明之世, 此何光景.

夫損生致命, 證主眞教, 顯主光榮, 吾儕分內事矣. 身亦將死之類也.

遇此敢言之時不一次仰首長呼啼而愍默就死則山積之懷將 無以自暴於百世之下.

아니 저 성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임금의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까?

애석하게도 저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러도 조금도 불쌍치 않단 말입니까? 옥중에서 죽어가고 성문 바깥에서 처형되는 것이 끊이질 않아 피눈물은 도랑을 이루었고, 통곡이 하늘에 울리고 있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부르짖고, 형은 아우를 부르짖으니, 마치 궁핍하여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맑고 좋은 세상에 이 무슨 광경입니까? 목숨을 바쳐 주님의 참 가르침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이 몸 또한 죽고 말 것이지만, 외람되나마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이 때에 한 번 고개를 들어 길게 외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죽어버린다면, 산더미 같은 이 생각들을 백세 뒤에까지 밝힐 길이 없을 것입니다.

Ah! Are not the people of the Holy Religion themselves the very children of our king? Alas, though these people have come to such an extreme, do you feel no pity? Deaths in prisons, beheadings at the gates, continue without end; tears have formed channels, cries swell to heaven. Fathers call for their sons, elder brothers call for their younger; like the destitute with nowhere to turn. In an era of clear peace, what a spectacle is this!
To risk one's life and give up one's breath to witness the Lord's true teaching and to manifest the Lord's glory is our duty. Our bodies too must die. If, when the moment comes to speak boldly, we fail to raise our voices and instead fall silent to meet death, then these great burdens of feeling will never be set before the generations to come.

伏乞, 時燭俯覧詳辨道理之眞僞邪正然後, 上造朝廷, 下布民庶,
一變至道弛禁撤捕放釋獄囚, 與一國之民, 安土樂業, 共享太平, 千萬企望, 千萬企望.

엎드려 바라옵건대, 각별히 불을 밝혀 읽어보시고 도리가 참되고 바른지 거짓되고 나쁜 것인지를 자세히 분별하신 뒤에, 위로는 조정에 아뢰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선의 방법으로 일변하여 금령을 늦추고 체포령을 거두며 옥에 갇힌 이들을 놓아 주시어, 온 백성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태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천 번 만 번 바라고 또 바랍니다.

I earnestly beseech Your Majesty: at this time kindle a lamp, bend down and read, and carefully distinguish whether the principles are true or false, right or wrong; then present the matter to the court above and publish it among the people below. By a single change, relax the prohibitions, withdraw the arrests, and free those imprisoned, that together with the people of the realm they may settle on their lands and delight in their labor, sharing in great peace. This is my fervent and repeated plea.

又辭

또 아룁니다.

I beg again,

死人跟前, 薦酹酒食, 天主教之所禁也. 生前靈魂不能芻享於盃飯, 況死後靈魂乎.

飮食肉口之供道德靈魂之粮, 雖至孝之子, 以甘旨之味, 不能供父母寢寐之前者,

寢寐非飮食之時也. 寢寐亦然 ,況大寐乎.

稻粱黍稷芬苾之果非虛則假爲人子者以虛假之禮豈事已亡之親乎.

죽은 사람 발 앞에 술과 음식을 바쳐 올리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적에도 영혼을 술과 음식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죽은 뒤의 영혼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음식은 육신과 입을 공양(供養)하는 것이요, 도덕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무리 효성(孝誠)이 지극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으로 주무시는 부모 앞에서 공양을 할 수 없는 법이니, 잠잘 적엔 먹고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잠을 잘 적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아주 잠든 때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쌀밥, 기장이며 푸짐한 과일들은 헛된 것이 아니면 거짓된 것이니, 자식된 자가 헛되고 거짓된 예절로 돌아가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Offering wine and food before the dead is forbidden by the teaching of God. While alive the spirit-soul cannot be entertained by cups and food, much less the spirit after death. Food and drink provide for the body and mouth; virtue and moral teaching are the food of the spirit-soul. Even the most filial son, with delicious foods, cannot serve his parents while they sleep, for sleep is not a time for eating. If it is so in sleep, how much more in the deep sleep of death. The rice, millet, and the rich fruits, if they are not real then they are mere illusions. Can a son by empty and false rites truly minister to his departed parents?

所謂, 士大夫木主, 亦天主教之所禁也. 旣無氣脉骨血之相連, 又無生養劬勞之上關矣.

父母之稱, 何等重大, 以工匠之所制造, 粉墨之所粧點, 因爲之眞父眞母乎, 正理無據,

良心不允, 寧得罪, 於士大夫, 不願得罪, 於天主教.

이른바 사대부(士大夫)들의 위패(位牌)도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패는 부모님의 기맥(氣脈)이나 육신과는 아무 연관도 없으며, 낳아 길러주신 은혜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장인이 깎아 만든 것에 물감과 먹으로 칠하여 놓고는 진짜 아버지고 진짜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고 양심이 허락치 않는 것이니, 차라리 사대부들에게 죄를 지을지언정 천주교에 죄를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ancestral tablets (the tablets of the gentry), these too are forbidden by the teaching of God. There is no linkage of qi, pulse, bone, or blood; there is no relation to the toil of begetting and rearing. How great a thing is the name “father” and “mother,” can that name be truly given to a thing fashioned by a craftsman and dressed with ink and pigment? There is no right principle to support it; conscience cannot permit it. Better to incur the displeasure of nobles than to incur guilt before the teaching of God.

Translation drawn from:

Hanmoon writing (Korean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translated to Korean by SiJun Kim, *Letter to Chancelor.* Korean Jesuit Center. *1987*.

Letter to Chancelor. Wikisource (Kr). 2014. (Last edited)

ChatGPT was used for translation from both Hanmoon & two Korean translation to English.

Final editing in English by Dcn. Stan Lee.